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장마철 일기예보 승리제단에 물어보고 하라

장맛비를 구세주가 막고 있는 걸 모르니 기상청만 혼쭐난다

구세주께서 장마를 막으신 지 벌써 36년째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 한 달 사이에 장맛비가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을 거쳐 북부지방까지 오르내리며 계속 내려왔다. 그래서 모내기를 한 눈에 물이 그득 차게 되므로 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썩어서 흉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거의 매년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우리나라는 항상 쌀이 부족하여 주식인 쌀 대신 보리로 연명해야 하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다.

구세주께서는 한민족에게 풍요를 주기 위하여 장맛비를 막겠다고 1981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지켜 오고 계신다. 승리제단 신도들은 구세주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1981년부터 즐기게 장마가 없었겠다고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지만 믿지를 않고 있다.

기상청 2009년부터 '장마' 용어 안 쓰기로

그런데 2008년 8월 23일자 조선일보에는 "내년부터 '장마'는 없다"는 기사가 실렸다. 장마가 와도 비가 안 오니, 매스컴에서는 '마른 장마'라는 새로운 어휘를 창작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장마가 끝났다고 하면 비가 오니, 장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세주께서 장마를 계속 막아 오시니 조선일보는 올해 7월 14일

창간정신
1. 영생대도의 실천
2. 영생학의 보급
3.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구세주의 말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죄다. 승리제단에서는 누구도 패한이해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주님께 있는 것이다. 자신이 패한이해 소유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상청, 장마 예보 이제야 안하기로 결정

1981년부터 장마 막아온 구세주와 승리제단의 승리

조선일보 7월 21일자 보도 내용
기상청이 내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21일 "장마가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장마철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장마철이 끝난 뒤 비가 내리는 등 장마 예보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국민들에게 유용할(유용)에 대한 평가가 낮아져 장마예보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장마, 1981년부터 사라져
장마는 유린 민족의 지난 36년의 고난이었다. 모내기 직전 농부들이 열심히 모를 내내 모내기하러 내리며 모가 빠르

정도령님은1981년 8월 18일, 처음(영생의 대도)를 설하신 후 다음과 같이 5가지 약속을 하시고 이행하고 계십니다.



승리신문 2016. 8. 1일 1면 1번 내용. 제목에 적혀있는 기상도(하) 2008년 당시 장마 뒤 비가 더 온다는 기사(하)

구세주 '5대공약' 현실이 되었다

세계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7년 구세주인 구세주는 1980년 8월 18일 창시(영생의 대도)를 설하신 후 다음과 같이 5가지 약속을 하시고 이행하고 계십니다. 1. 영생대도를 선포하시라. 2. 영생학을 보급하시라. 3. 영생문화를 창달하시라. 4. 영생대도를 실천하시라. 5. 영생대도를 선포하시라. 6. 영생대도를 선포하시라. 7. 영생대도를 선포하시라. 8. 영생대도를 선포하시라. 9. 영생대도를 선포하시라. 10. 영생대도를 선포하시라.

승리신문 2016. 8. 1일 1면 1번 내용. 제목에 적혀있는 기상도(하) 2008년 당시 장마 뒤 비가 더 온다는 기사(하)

2008. 8. 23. 조선일보 <내년부터 '장마'는 없다>는 기사를 참고로 발행한 승리신문 2008년 9월 1일자 1면 기사

자 사실에서 "날씨 예보 못 하고 중계 나 하는 기상청"이라는 제하의 글을 내보냈다. 다음은 사실의 일부다. "최근 기상청 날씨 예보가 틀려도 너무 틀려 국민 원성이 자자하다. 기상청은 지난 6~12일까지 1주일 중 5일은 "장맛비나 소나기가 내린다"고 예보했지만 단 한 번도 맞지 못했다(서울 기준). '정확도 0%'인 최악의 예보였다. 지난 12일에는 하루 전날 예보는

물론 당일 예보도 틀렸다."면서 "기상청 날씨 예보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지적받아온 사안이다. 그런데도 개선 기미 없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장마 기간 예보 정확도는 49%에 그쳤다. 올해 2월부터는 532억원을 들여 구입한 슈퍼컴퓨터 4호기까지 가동했지만 연일 엉터리 예보만 하고 있다. 예보관들의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임

내년)이라며 예보관의 무능만을 탓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기상청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조희성 선생이 구세주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내년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장마기간 동안 예보는 맞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는 풍년들께 하기 위해서 계속 장마를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8월: 구세주 초희성님 성탄의달

최초로 사망을 정복한 인류사 최대의 쾌거

인류 역사 중 최대의 굿뉴스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생을 목적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연 이기신 하나님께서 1931년 8월 12일 신미생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은 무엇을 이겼다는 것인가? 이기신 하나님은 바로 사망의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다.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사망의 신이 합부로 범접(接觸)하였다는 즉시 가루도 존재도 없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기신 하나님은 사망의 신을 정복한 존재이며, 그 결과 영생을 쟁취한 최초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육체적 한계를 초월해 영적으로 역사하는 자유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이다. 인류 역사 육천 년이 흐르면 인간 세계가 자동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어

육천 년 전에 마귀가 이미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점령하여 계속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귀는 인류 역사가 육천 년이 흐르지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범접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귀의 계략은 거기까지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바로 육천 년이 차기 직전에 마귀를 박멸소탕할 수 있는 무기(감로이슬)를 개발한 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구세주를 배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각 종교마다 경전으로 보는 책에 그 계획을 기술해 놓고 인봉해 놓았다. 구세주 당사자가 출현하면 해석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것이다.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기는 존재 출현 각 경전에 예언돼

먼저 성경은 구세주는 밝은 별의 이름을 가지고(호세아 14:5. 계 2:26-28), 양피로(구원 얻는 동물을 양으로 비유한다), 광골 모퉁이에서(사 41:1-9), 단군의 후손으로(창 49:16) 출현하게끔 예비해 놓으셨다.

또한 정도령의 출현을 예언한 격암유록에서는 정도령은 경기도 김포(金浦) 출생으로(出將論), 창녕 조(曹)씨로(賽四-), 효성(曉星)과 길성(吉星)을 뜻하는 이름으로(桃符神人), 양피로(弓

論), 해인(海印)을 가지고 출현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미륵불의 출현을 기록한 불경에서는 조(曹) 씨로(미륵하성경, 대반열반경, 선불가진수어록), 명성(明星)을 뜻하는 이름으로(미륵내시경), 한국에서(중일아함경), 양피로(대반열반경) 감로(甘露)를 가지고(대반열반경) 출현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조희성님 한 분뿐이다. 이러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 권능은 감로(甘露, 이슬성신)

구세주는 감로를 가지고 나온다고 되어 있다. 감로는 불로초(不老草) 불사약(不死藥)일 뿐만 아니라 태풍을 막고 풍운조화를 부리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권능의 실체이다.

세계 만민들이 금은보화와 외화를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한국 땅으로 몰려 들 것이다. 그때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부국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중주국이 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7)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긴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싸우는 가운데서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좌정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하나님이 내가 되어 그 하나님께서 계속 조종하며 움직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려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다. 이것이 바로 마귀 영 육에서 석방된 하나님의 상태인 것이다.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마음의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하며 애를 쓰고 기를 써야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싸움을 멈춘다든지, 다투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붉은 용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부천 괴안동 택시 사고에 관하여



조남임 권사가 후진하는 택시에 부딪혀 넘어져 있다

최근 역곡역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27세 청년이 택시비 4000원을 안 내려고 택시기사와 승강기를 밟아도 그 택시를 강탈한 후 도주하다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침 그 옆을 지나던 본부제단 소속 조남임 권사님이 후진하는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봉 날아 뒤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큰 사고에 90이 다된 할머니(실제나이 89세)가 같이비 2개 금이 간 거(Xray에는 안 나옴) 외에는 다친 곳이 없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다. 조 권사님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왜 사람들이 싸우고 있기에 그걸 보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후진하면서 나를 들이받았어. 그래서 봉 날아서 뒤로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도저히 못 일어났었는데 누가 일으켜서 일어나 응급실로 간 거야.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정도밖에 안 다쳤다고 생각해"라며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표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취재하러 온 KBS 강희재 피디도 병원에 입원해 계속 출을 알았는데 퇴원 하겠느냐며 의아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뉴스 동영상도 보니 장난이 아니더라는 것이다. 범인은 택시를 뺏어 타고 3킬로 이상을 질주하면서 차량 3대와 5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는데 약간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 제단 식구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식구들이 자유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세상에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더욱이 우리 제단 식구가 직접 피해자가 된 이 사건은 우리 식구들이 자유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영력(靈力)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대로 그것이 실현이 되고, 반대로 영력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마귀는 우리 제단 식구들 중 약한 사람을 잡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정정합니다: 715호 1면 배제대 손성태 교수를 배제대 손성태 교수로 정정합니다.